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
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후서 3:3

2~3면 신년특집, 담임목사 인터뷰 3면 태안 봉사체험 수기 4면 루디아의 집에서 온 편지



송구영신예배: 2007년을 기도 가운데 마무리하고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고자하는 주님의교회
성도들이 지난 12월 31일밤 교회에 모였다. 사진: 서정하 집사

2008 사역박람회

“받는 신앙에서 섬기는 신앙으로”

2008 사역박람회가 ‘받는 신앙에서 섬기는 신앙으로’ (From Being Served to Serving

Others) 라는 제목으로 1월 20일과 27일 2주일동안, 오전 8:30부터 오후 3:00까지 1층 로비에서 봉사사역본부 자원봉사연결팀 주관으로 열리게 된다. 사역박람회는 교회 내외의 다양한 자원봉사사역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참여해야할지 몰라 그동안 사역에 동참하지 못한 교우들과 그들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역지를 자세히 연결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행사이다.

사역박람회에 참가하는 방법은 기존 사역에 대한 안내를 위해 제작된 사역박람회 안내 브로셔가 13일 주일(오늘) 모든 성도들에

자원봉사사역에 어떻게 참여해야할지 몰라 동참하지 못한 교우들과 사역지를 연결...

확인/결정하고, 1월 20,27일 마련되는 로비 1층 사역박람회장에 마련된 부스나 1층 곳곳에 비치될 신청서 수거함에 20,27일에 배부될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관심 있는 사역이라면 얼마든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박람회의 부스는 1월 20, 27일 주일 1층 로비에 ‘통합 안내 데스크’ 이름으로 로비 중앙에 비치될 예정이며, 행사장준비 및 전체진행은 봉사사역본부 자원봉사연결팀에서 맡게 된다(문의: 자원봉사연결팀장, 김유호 안수집사 011-9776-8317). 박의일 목사

2008 제 직 명 단

장 로: 김경신 한윤경 권오승 문창복 이병식 김현덕 박호길 이지화 엄주청 김성배
이영자 김재현 김완중 김양자 김용일 신정웅 김창안 김한중 조원호 최상인

피택장로: 박중규 박대길 장일형 조성득

은퇴장로: 김도목 홍근용 정규창 양동훈 성백술 계학용

사임장로: 황기연

협동장로: 권현일 강신후 장길석 최대형 구자삼 노경환 김영식 류석우 홍연표 이을형
백항기 김수호

권 사: 이정원 김미자 박두리 남옥연 강정혜 노봉옥 김갑수 이성연 송경녀 임선자
이동순 김은정 장순현 이경아 박경옥 박예스더 이상경 남현숙 최명숙 배홍자
최윤정 김지자 한은수 이희숙 김귀옥 김홍도 이경희 김성애 전해영 우일강
이지연 손천숙 신재수 전영선 이영남 이광자 장혜경 이창성 김옥라 김형기
강옥희 박인숙 오점덕 이경희 오영실 김명애 고선옥 유은숙 최영순 고정순
김금숙 강경원 김선례 이종은 김순희 이경자 박영남 박귀희 신영숙 최재경
김운선 은영희 정영숙 송경혜 이봉순 백숙자 최정윤 고유자 정옥준 허명숙
이드보라 조순자 도성자 허영자 김청자 박혜숙 김화자 임선자 김영희 이영남
장경애 김연희 이혜숙 박순희 유영옥 김영숙 최진옥 박서연 김설희 이해옥
이희순 조명희 김정숙 이현숙 서금란 김예식 백경애 강혜선 이은우 우진선
김현주 이미화 이동숙 김향순 장혜정

피택권사: 신명식 이준옥 권승남 박형자 권이홍 고정옥 방혜준 오영숙 김고미 김진숙
유임순 이영란 김금옥 김화순 박지원 문현주 양계수 김영림 김홍숙 문희주
이정임 조옥실 서광숙 김현진 이명자 한정신 전진희 황정매

은퇴권사: 소호용 장남순 김화진 전은숙 박영숙

협동권사: 임성찬

안수집사: 이성우 하승락 정양재 김성구 이종석 백승준 김동일 박인호 장일형 장승수
오중세 최경호 김영봉 한형식 강승순 박중규 조성득 서치영 송국환 최종만
최종명 박동수 문완홍 강진식 자유철 임창남 김기용 김홍용 박대길 김구중
김동근 이용수 박중순 윤의탁 최성준 이원철 심동욱 조영률 동현수 김학원
양태홍 박 건 송승엽 박흥현 권순영 박재준 이재현 왕승근 정중국 전건호
정원영 이 열 배익환 장득순 김병한 고한규 이진원 손철규 정재훈 김유호
박영주 공진권 신형섭 김용진 권승환 김은성 최성진 이병직 한군희 이진걸
윤성진 조선연 손영익 박기운 지호선

피택안수집사: 최재규 윤하중 권덕원 유정식 황용환 홍운식 이문채 박규택 이성래 박인국
유승하 송행근 고석창 방치웅 김두용 이성준 김낙균 유희문 김창균 김 혁
조병길 최영배 하광엽 김성윤 황준기 강승중 임봉수 김인성

은퇴안수집사: 임현표 조일송 조남홍 오세윤 김영중

(5,6면에 계속)



말씀의 사람으로
온성도가 변화 되길...



지난 수요일(9일) 예배를 마친후 기자들은 목양실로 모였다. 신년을 맞아, 함줄함을 특집으로 박원호 담임목사와 신년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였다.

따뜻한 인사를 주고 받으며 시작된 인터뷰는 사뭇 진지한 기자들의 질문과 담임목사의 자상한 대답으로 1시간 남짓 이어졌다. 아래는 인터뷰를 녹취 요약한 것이다. 기록/편집 최사라기자



Q 신형섭 부장: 최근 주님의 교회 많은 성도들이 태안반도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일에 헌신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A 박원호 목사: 요즘은 목회자를 옹기고 나서 적응시간이 너무 빨라진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종종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도님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50여명의 성도님들이 태안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며 그 마음이 깊고 순수하고 진실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Q 엄혜숙 기자: 목사님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궁금합니다.

A 박원호 목사: 저는 항상 운동으로 풀립니다. 요즘에는 테니스나 볼링을 하고요. 어릴적부터 교회에서 다양한 운동을 접해 왔습니다. 중학교 때는 탁구 선수도 했고 배구도 했습니다. 도내체전에도 참가할 정도로 운동을 즐겼습니다. 지금의 키가 고등학교 시절의 키인데 당시 점프실력은 농구링을 손으로 잡을 정도였습니다(웃음).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도 과격(?) 운동을 통해 풀어버립니다.



Q 최사라 기자: 언제 목회자가 될 결심을 하셨으며 그 계기는 무엇인가요?

A 박원호 목사: 어머니가 서원기도를 해 저를 키

우셨습지만 어릴 적에는 목회자가 되는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말에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외무고시를 보고 난 뒤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오는 길에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후 일상이나 꿈 속에서 목회자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줄곧 목회자가 되기 위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Q 최사라 기자: 어머니의 서원기도를 언제 아셨나요?

A 박원호 목사: 어릴적부터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저를 목사로 귀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이를테면 저에게 돈을 주실때 늘 땀땀한 새 지폐로만 골라주셨습니다. 학교도 꼭 미션스쿨을 가도록 하셨구요. 아마 당신께서 서원한 것을 늘 염두해 두고 계셨던 듯 합니다.



Q 이병직 기자: 믿는 우리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A 박원호 목사: 답은 쉽게 드릴수 있습니다. 삶속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청빙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그의 뜻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 가운데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민감성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빈도가 점점 늘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 점점 마음의 평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Q 엄혜숙 기자: 목사님의 목회철학을 들려주세요.

A 박원호 목사: 제 목회철학은 장로교 교리 그대로입니다. 오직 말씀 중심이며, 모든 교인들이 교회일에 참여하는 만인제사장설을 바탕으로 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예배를 통해 '12단계 성경공부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어 기독교인의 가치를 만들고 배움이 실천이 되도록 훈련하고 싶습니다.



Q 이정애 기자: 학업과 취업 등 다양한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박원호 목사: 샤론 패리스 라는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쓴 '치명적 시간(Critical years)' 이라는 책에 따르면, 청년시기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이 때를 잘 보내야 평생 신앙을 잘 닦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힘든 과정을 즐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적으로 고민하면서 그 틀을 잡으십시오. 절대 쉽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결국 답은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깊이 고민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Q 김창안 장로: 목회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신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A 박원호 목사: 만일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2년간은 오로지 헌신하는 일꾼을 키우고 싶습니다. 한 10명 정도요.

현재는 여러가지 일에 쫓겨 사람을 키울 시간이 부족합니다. 만약 처음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헌신하는 사람을 키우고 싶네요.

Q 김창안 장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사모님과는 어떻게 만나셨나요?

A 박원호 목사: 저희는 대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같은 학번 같은 학과 동기입니다. 저희는 C.C.(Campus Couple)입니다.



Q 김세나 편집간사: 목사님은 언제 행복감을 느끼시나요?

A 박원호 목사: 예전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는 가르치는 일이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을 목회의 즐거움하고는 바꾸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중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 그 삶이 변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면 그 행복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Q 이정애 기자: 목사님의 보물 1호는 무엇인가요?

A 박원호 목사: '운동을 잘 할수 있는 체력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제 보물입니다.

어릴 적에는 공부보다는 운동이 좋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말씀을 좋아하게 되고 책에 파묻혀 지내게 되었는데, 그 마음이 어디서 생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끄셨나... 참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 그 삶이 변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면 그 행복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Q 김현령 목사: 질문에 성심껏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인터뷰를 마치면서 2008년도를 새롭게 맞은 주의교회 성도님들에게 인사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박원호 목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8년도에는 말씀사역을 다시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2단계 성경공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3년 반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쉽지 않은 여행이 되겠지만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 소망을 온교우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 다음날 태안반도 오염 방제작업에 참가하기 위해 이른 아침 아내와 함께 버스에 올랐다. 이번 재난으로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봉사활동에 동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주님의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하면서 참으로 오랜 시간 봉사 활동을 게을리 했던 부끄러움을 감추고 그렇게 떠났다. 현장에 도착 하자마자 간단한 주의사항 그리고 복장을 점검하곤 열심히 닦고 또 닦아 냈다.

해야 할 일들은 끝없이 많은데 생각보다 이른 만조 때문에 아쉬움을 뒤로 해야 했고, 심각한 오염은 어느 한곳도 끝나지 않은 채 방제작업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철수했다. 신음하고 있는 자연과 이미 죽어 있는 많은 생명들을 보고 돌아 와 그 처참한 광경들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는다. 자기 몸을 숨기느라 느리지만 은신처를 찾으려 애쓰는 두 마리 개의 모습에서 본능적 방어 수단의 생명력, 그 아름다움도 보았다. 하지만, 기름 묻은 돌 밑에 몸을 숨기고 있던 그 작은 게 두 마리가 내 마음 한 편에서 신음하고 있어 편 칠 않았다. 이 게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 이 환경 이대로는 정말 안 되는데... 저를 어떻게든 살려 주어야 하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고작 돌에 묻어 있는 기름 닦아 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더했고, 이들 역시 머지않아 죽어 갈 것을 생각하니 돌아 올 때 걸음은 가볍질 않았다. 일행과 함께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갈 때와는 사뭇 달리 아무런 말들도 없이 창밖 저 멀리 저녁노을 지는 태안 쪽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연과 생명, 세상의 모든 것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회복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기도 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김형옥 (5-18)

고등부, 기름때를 닦았습니다!

민족의 재앙이라 불리는 태안의 기름유출 사고를 대하여 크리스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냥 멀리 서서 기름 유출의 원인을 따져 원성을 보내거나, 당분간 해산물 먹기는 어렵겠다는 투정부림이 우리의 일은 아닐 것 같은데...다행히 이 기름의 유출 현장



에 한
국 교 회 가
한 마음이 되어
나선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난 몇 달 동안 교회는 아프가니스탄의 사건 때문에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었는데 다행히 한국 교회가 아무 대가 없이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 아직 방학은 하지 않았지만... 담임선생님을 설득하여 태안반도를 섬기기로 결정했다.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교회로 갔고, 교회서 체계적으로 준비한 버스와 준비물품을 받아 태안반도에 도착하였다. ‘여기가 거긴가?’ 호기심도 있었지만 일반 바닷가에서 비릿한 냄새가 아닌 눅눅하고 느끼한 기름 냄새가 먼저 다가 왔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스핀지에 나오는 실험맨처럼 중무장을 하고 양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걸레를 들고 해안가 갯바위로 향했다. 아니나 다를까? 쉽지 않다. 뭘 닦아야 할지.. 그리고 닦아서 될 건지.. TV에서 나오듯이 기름을 한 바가지씩 퍼서 나를 줄 알았는데, 그런 기름 덩이가 아니라, 바위 속 구석구석에 묻은 기름때를 닦아 내는 일이었다. 기름 냄새를 맡으며 열심히 돌들과, 갯바위와 씨름을 했다.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지만...점심이라 알리는 소리를 듣고 일어났을 때, 나의 주변 검은색 돌들이 점차 제 색을 보이는 것을 보며 땀을 흘린 보람을 느꼈다.

태안의 봉사는 잠시 피곤과 두통을 가져다 주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기쁨과 평안함이 더 컸다. 더불어 쉽 없이 닦아내야 할 내 마음속 기름때가 있지는 않는지...신앙적인 돌아봄의 기회도 되었다.

유성훈 목사(고등부)

태안봉사
체험수기

2008년 새해 첫 선교중보기도모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난 주일(1월 6일) 오후 2시에 해외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중보기도모임이 있었다. 선교사역본부 선교중보기도팀 주관으로 열린 이 기

도회는 약 30명의 성도들이 참여하였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은 해외에서 밤낮으로 영적

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인 참여자들은 기도와 격려로 선교사들을 후원함으로써 '보내는 선교

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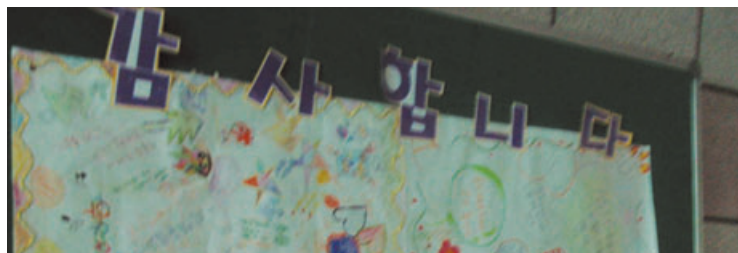
우리의 중보기도와 격려로 인하여 일선의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이 더욱 힘을 내어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전파를 위해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병직 기자

선교중보기도모임은 매월 첫 번째 주일 오후 2시~4시에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루디아집에서 온 감사편지

교우들의 사랑,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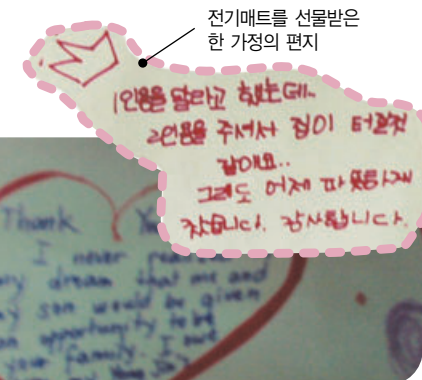
저희시설에 후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려운 저희 시설에 재활물품을 보내주심 감사드립니다

장애우들을 위한 주님의교회 교우들의 사랑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니다. 후원해 주신 물품 및 후원금은 장애인들을 위해 잘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평 루디아의집 직원일동



전기매트를 선물받은 한 가정의 편지

의료용침대 1대 / 마사지매트 1대 / 족욕기 1대 / 좌욕기 1대 / 디스크벨트 1개/ 지압방망이 1개 / 교우 후원금 100,000원

*장애인사역팀은 교우들이 헌물한 재활물리치료를 1월 7일 전달하였다.

표준어

입방미터(X)→제곱미터(O)

요즈음 '평'이라는 단위를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25평 아파트는 83㎡ 아파트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평방미터라고 하는데, 미터법에 의하면 한 변의 길이가 1미터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1제곱

미터(㎡)입니다. 평방미터는 일본어에서 온 말입니다.

제제곱미터도 마찬가지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미터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1제제곱미터(㎥)입니다. 일본어 입방미터가 아닙니다.

이정애 기자



다음[next]이란 뜻이에요

오른손 검지를 펴 어깨 위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내밀면 '다음'이란 뜻입니다

로 템 나 무

죽임 당하신 어린양

아침마다 일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겔46:13)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흠 없는 어린 양이다.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아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열심이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받으신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어느새 나는 예수님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래서 나의 예배는 예수님 없이도 드러질 때가 많았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53:7)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저항 없이 죽임을 당하는 어린양이 되셨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

주님!

습관적으로 예수님 없이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엄혜숙 기자



2008년 어와나클럽 부모모임

일 시: 1월13,20,27일 14:00~15:30

장 소: 3층 초등부실과 소년부실

대 상: 2008년 입단신청서제출부모님, 관심있는 분들



어와나클럽

*2008년 자녀의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신 가정의 부모님 중 한분은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입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종입단은 1월말 확정됩니다.)

●2008년 주님의교회 어와나클럽원 부모모임

일시	주제	내용
13일	어와나클럽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클럽원 부모라면 기억하기 미국 어와나 역사, 한국 어와나 역사, 주님의교회 어와나 오늘, 2008년 주 님의교회 어와나클럽 행사와 계획, 클 럽원 부모가 기억해야 할 사항
20일	주님의교회 어와나클럽 운영의 실제	게임, 핸드북, 교제, 부모입단과정
27일	자녀 핸드북 지도, 이렇게 해주세요!	불티-티앤티 핸드북의 구성, 핸드북 지도의 실제, 2008년 클럽원 부모의 다짐

오늘 기도



하나님..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2008년 되게 해주세요!

2008 제직부서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 공동의회/의장 : 박원호목사 / 공동의회서기 :
 □ 당 회/당회장 : 박원호목사 / 당회서기 :
 □ 제 직 회/의장 : 박원호목사 / 제직회서기 : 김성구 안수집사

A. 선교사역본부

본부장: 박호길 / 본부위원: 김성배, 조원호
 교역자: 정희성, 배현성

사역부서	부서장	교역자
선교교육행정팀	손영익	정희성
전문인선교팀	의료팀 김학원	
	법조팀 황용환	
	미술팀 동경숙	
단기선교팀	이희숙	
선교사지원팀	김은성	배현성
캄보디아선교팀	박지권	
주한외국인선교팀	김두용	
북한선교팀	김성구	
농어촌교회사역팀	홍운식	
도시개척교회사역팀	이원철	
군부대교회사역팀	윤의탁	
선교사중보팀	이병직	

B. 복지사역본부

본부장: 엄주청 / 본부위원: 김양자, 신정웅
 교역자: 신화식, 이강찬

사역부서	부서장	교역자
하프타임사역팀	조영률	이강찬
환경사역팀	조병길	
호스피스사역팀	허명숙	
전화상담사역팀	김연희	
복지사역팀	권승환	신화식
장애인사역팀	임창남	
기관사역팀	이재현	
구제사역팀	고유자	
꿈나무사역팀	이봉순	
함사랑기금팀	정준호	

C. 교육사역본부

본부장: 이지화 / 본부위원: 최상인, 박종규
 교역자: 정요섭, 김현령

사역부서	부서장/지도권사	교역자
삿트네(7세이하)	최정윤/유영옥	김수연
레인보우(초1-6년)	이 열/이동숙	윤대운
영아부(3세이하)	이희숙/김갑수	주선영
유아부(4-5세)	권이홍/오영숙	전은숙
유치부(6-7세)	박지원/우일강	전재표
유년부(초1-2년)	박기운/이경자	이희영
초등부(초3-4년)	강웅순/최재경	최 락
소년부(초5-6년)	윤성진/이희순	신상욱
중등1부(중1-2년)	지호선/김현주	임경순
중등2부(중3년)	김성윤/오점덕	채문식
고등부(고1-3년)	김낙균/손천숙	유성훈
교육지원부	김영림	정요섭
청년부	정재훈/노봉옥, 우진선	김현령
30대사역팀	김병연	

D. 봉사사역본부

본부장: 김현덕 / 본부위원: 김창안, 김한종
 교역자: 이호, 박의일

사역부서	부서장	교역자
봉사팀	(남) 한형석 (여) 문희주	박의일
주방팀	(전반) 김청자 (후반) 이지연	
주차안내팀	최재규	
자원봉사연결팀	김유호	
שלמחנולg팀	이은우	
결혼안내팀	서광숙	
서점사역팀	장득순	이호
도서실사역팀	최정숙	
방송사역팀	유희문	

E. 목양사역본부

본부장: 이영자 / 본부위원: 김용일, 조성득

교역자: 이창현, 우동윤

사역부서	부서장	교역자
예배팀	조선연	이창현
1부/호산나찬양대	설영운	
2부/시온찬양대	박인호	
3부/살롬찬양대	권순영	
4부/임마누엘찬양대	김익환	
교회역사자료보존팀	배성은	
사진사역팀	고석창	
할렐루야찬양팀	전진희	배현성
안내팀	강진식	우동윤
새벽기도사역팀	최종명	
새가족사역팀	동현수	
세례사역팀	고한규	정희성
가정사역팀	심동욱	
제자화사역팀	최재경	이 호
중보기도사역팀	신영숙	
영어예배사역팀	이혜경	나현수
인터넷사역팀	손철규	
통역사역팀	한진희	

F. 청소년사역본부

본부장: 김완중 / 본부위원: 박대길, 장일형

교역자: 정요섭 (→ 전담사역자)

사역부서	부서장	교역자
청소년사역지원팀	홍기협	정요섭
방과후학교	이종은	
학원사역팀	김영숙	
유소년축구팀	이용수	
AWANA사역팀	최성진	전미이

G. 기타사역조직

사역부서	위원	
재정위원회	김재현	계수부: 정중국
		경리부: 문완홍
장학위원회	당회서기,이영자, 조원호,김용일,김한중	
인사위원회	당회장,당회서기, 김현덕,이지화,김양자	
감사위원회	신정웅 (실무:손철규)	
주님의동산건립위원회	이병식,박호길,김성배,김완중	
사무국	위원: 담임목사,당회서기 부장:김동근	
홍보출판팀	위원: 담임목사,김창안장로 교역자:이강찬/부장:신형섭	
경조부	교구경조 시 교구장로가 경조부장이 되어 주관한다.	
목적이이끄는40일 캠페인사역팀	팀장: 당회서기/ 교역자: 우동윤	

* 2007년 장로피택자는 2008년 1월 1일부터 본부위원으로 참여합니다.

함글함글은 요람작업 및 설 연휴관계로 2월 17일까지 휴간합니다. 223호는 2월 24일에 발간합니다.